

2005 **vol.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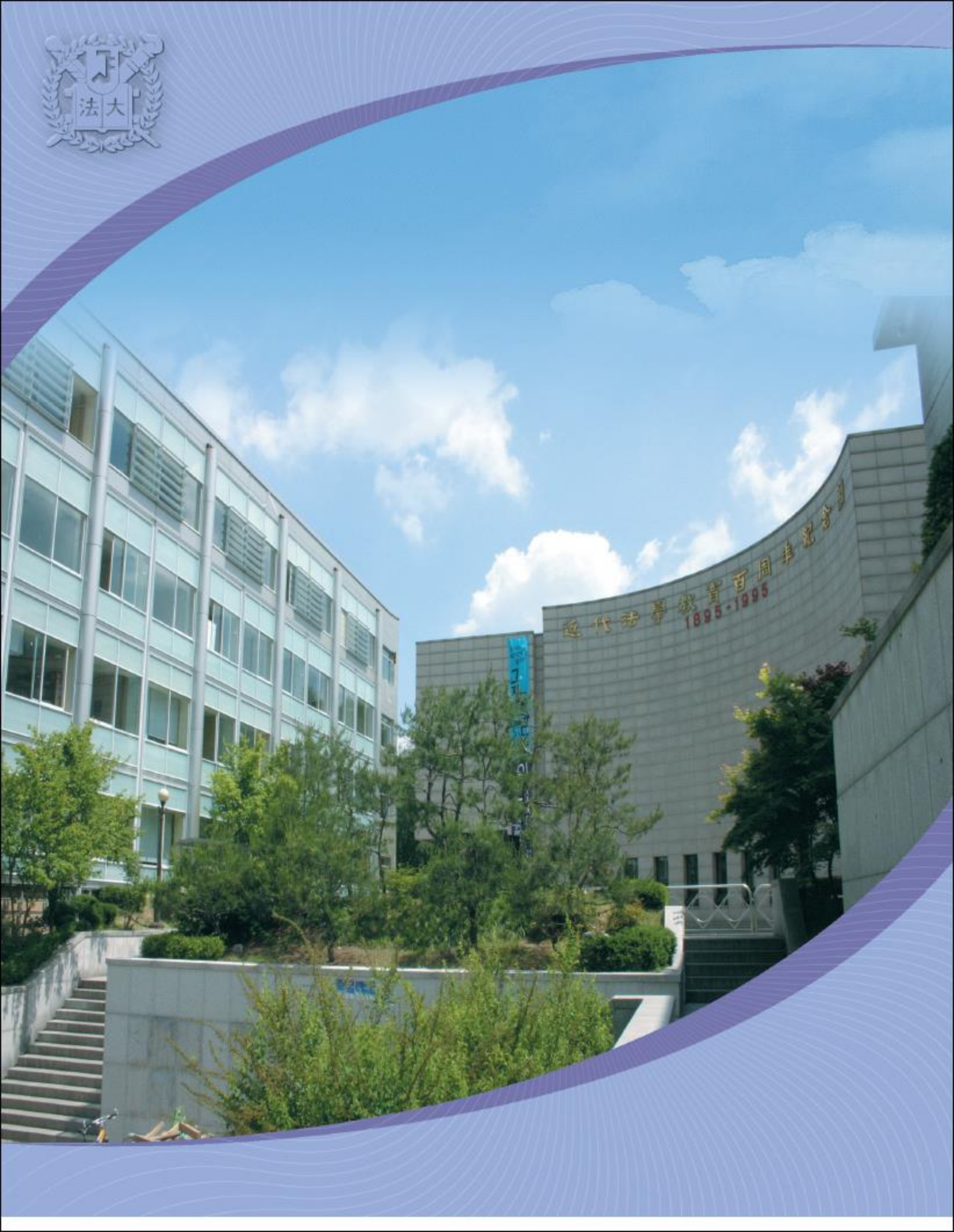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Magazin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발간사

- 정의의 종 제4호를 내면서 - 학장 인사말

2

후원소식

- 후원인 명단

3

특집 1 - 법대 강의동 전면 증개축

4

특집 2 - 신입교수 및 외국인 초빙교수 소개

8

- 이원우 교수
- Rainer Frank 교수
- 崔林林 교수

학술활동

12

- 학술 활동과 국제화
 - 국제 학술활동
 - 서울대 버클리대 기술과법센터 공동주최 제2회 하와이 국제 컨퍼런스
 -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원주최 세미나 "한국에서 본 일본법" 세미나
 - 산타 클라라 대학 학술회의
 - 태국 출라롱크 대학 2차 ASU
 - BK Foreign Authority Forum
 - 외국인 학위 취득자, 교환학생, BK21 해외연수 현황
 - 알사, 제섭
 - 외국인 교수 방문, 강연 및 국제교류
- 국내 학술활동
 - BK 학술대회
 - BK21 법제도비교연구센터 "비교법과 법학연구(III)"
 - BK21 공익인권법센터 "국제법과 여성인권 - 차별금지과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 BK21 법제도비교연구센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BK21 법제도비교연구센터 "법의 역사와 법학연구"
 - 각종 학술강연
 - 기당 이한기 박사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 조국 교수 관악사 콜로키움 강연
 - 송상현 교수특별 세미나
 - 김동희 정년기념강연
- 교수 집담회

■ 서울법대 교수진의 저작물 소개

24

■ 최고지도자과정(ALP) 소개

31

- 제2기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식 및 활동사항

■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32

-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9기 [인터넷과 법률 II]

동문인터뷰

33

- 김영란 대법관

교수동정

37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40

SNU Law Magazine 제4호

발행인 : 성낙인
 편집 : 박정훈, 조국, 송석운, 정성연
 발행일 : 2005년 6월
 발행처 : 151-74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신56-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 (법과대학)
<http://snu.lawfund.or.kr> (법학발전재단)
<http://us.snu.ac.kr/~lawletter> (월간법학뉴스레터)



“정의의 종 4호를 내면서”

유난히 시렸던 겨울이 지나고 완악산록에 펼쳐진 봄꽃들의 축제에 이어 어느새 녹음이 우거진 계절이 되었습니다. 2004년 말에 간행된 ‘정의의 종’ 제3호에 이어서 이번에 발간하는 ‘정의의 종’ 제4호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법대 안팎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이야기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서울법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학교육에 대한 담론은 우리에게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법과대학의 가장 중심적인 공간인 법대 강의행정동(15동)의 외벽 증개축을 특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대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몇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법과대학의 가장 중심적인 공간인 법대 강의행정동(15동)의 외벽 증개축을 특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대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몇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는 서울법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으로 맺어진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한발자국을 밀거름 삼아 법학교육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선도하는 서울법대로 다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간 서울법대를 사랑하는 동문님들과 후원자님들이 베풀어 주신 따뜻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종’ 제4호의 원고를 작성한 분과 편집위원께 감사드립니다.

2005. 6. 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성 낙 인 (成樂寅)

후/원/인/명/단

SNU Magazine

2004년 후원인 명단

	이름	원
04.12.7.	박정렬	500,000
04.12.13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18개세법수료생	10,000,000
04.12.14	정삼조	10,000,000
04.12.17.	김태성	100,000
04.12.17.	법무법인 바른 법률	20,000,000
04.12.20.	송옥렬	10,000,000
04.12.23.	김재형	2,100,000
04.12.23.	인광불	1,000,000
04.12.24.	상낙인	2,100,000
04.12.24.	정삼조	2,100,000
04.12.24.	정종섭	2,100,000
04.12.28.	박정훈	2,100,000
04.12.28.	이삼혁	1,000,000
04.12.28.	차형근	300,000
04.12.30	80학번 동문회	50,000,000

2005년 후원인 명단

	이름	원
05.1.7.	황우석	691,200
05.1.17.	이광희	3,900,000
05.1.17.	정삼진	500,000
05.3.2.	최고지도자과정 1기 수료생	50,000,000
05.3.9.	김&장 법률사무소	3,000,000
05.3.11.	남유선	2,000,000
05.3.11.	조재건	500,000
05.3.15.	김대희	5,000,000
05.3.16.	법무법인 세종	3,000,000
05.3.22.	법무법인 길장	3,000,000
05.3.28.	남부법인 세종	30,000,000
05.4.28.	제29회 동문회	50,000,000
05.5.2.	구본세	30,000
05.5.11.	황우석	700,000



특집 1 - 법대 강의동 전면 증개축

법학강의동 전면 증개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강의동(15동)은 법과대학의 건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학장단 집무실을 비롯하여 BK 연구실, 전산실 등 법과대학의 중추적 기관들이 대부분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법과대학의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교무행정실과 서무행정실도 이곳에 있다. 학부생 대상 전공수업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법대 내 모든 동아리들의 동아리방도 15동에 자리 잡고 있어 법과대학 15동은 학생들의 출입이 가장 빈번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법과대학 15동 건물 자체는 83년 신축 이후 별다른 보수공사 없이 현재까지 이르러 시설 면에서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년간 법과대학은 법학발전재단 발족에 매맞춰 15동내 각종 낙후시설들의 보수공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1층 유민홀 개관 및 엘리베이터 설치, 강의실 환경 개선, 조영래 홀 개관 등을 통해 15동의 시설들을 많이 개선하였다. 그러나 법과대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15동 외벽은 그동안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법학발전재단 기금이 좀 더 확보되고 본부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 마침내 작년 겨울 15동 외벽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기존의 낙후된 외벽은 단순한 미학적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외장타일의 박리현상과 더불어 외벽에 크고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 비가 올 때마다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여러 창틀과 그 부속 철물들도 너무나 노후해서 단열성과 기밀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엘리베이터 증설로 인해 15동내 홀면적이 줄어들었고, 계단 쪽 채광면적이 협소해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동안 법과대학의 이미지 저하의 주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활동에도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외벽 리모델링 공사는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우선 15동 외벽 전체를 현대적이고 깔끔한 알루미늄 판



증개축 전의 15동



증개축된 후의 15동

>> 특집1 - 법대강의동 전면중개축

넬로 교체했다. 기존의 황색 외벽과는 달리 새로운 알루미늄 외벽판넬은 작년에 개관한 1층 유민홀과 시각적으로 잘 조화되어 세련된 공간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아울러 비가 오면 물이 새던 기존외벽에 보호막을 설치해 누수현상을 차단했고, 두꺼운 복층유리 교체를 통해 기존 창호의 단열성을 보완하였다.

15동 내 환경이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 공사를 통해 개선되었다. 엘리베이터 뒷공간을 확장하고 발코니를 설치해 각 층당 7명 정도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계단 올라가는 각 층마다 전면 커튼월을 설치해 채광면적이 넓어졌고 건물의 전체적인 개방감도 확보하였다. 학생들도 매우 만족한 반응을 보였다. 03학번 정재우 학생은 “신입생 때 처음 15동 건물을 보고나서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15동을 보니 정말 꿈만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약 10억원에 가까운 큰 공사비가 들어간 대규모 보수공사였다. 부담스러운 공사비로 늘 미루어 오던 외벽교체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배려와 법학발전재단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후배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많은 법대 동문들이 발전재단을 통해 꾸준한 관심을 보여준 결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하나씩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법과대학은 이를 기념하여 6월 10일에 법과대학 앞 광장에서 준공식과 기념만찬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몇진 외관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법학도서관 중·개축문제, 대형 강의실 부족 문제, 열람실 부족문제는 모두가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쉽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법학 도서관 내 장서부족 문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법과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위해서 여러 법대 구성원과 동문들의 애정 어린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다.







近代法學教育百周年紀念館
1895-1995

특집 2 - 신입교수 및 외국인 초빙교수 소개

- 이원우 교수
- Rainer Frank 교수
- 崔林林 교수



이원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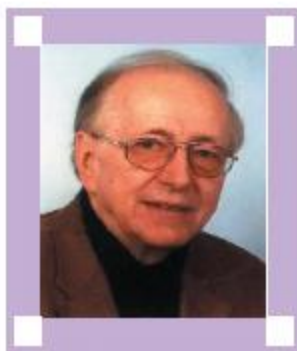
이원우 교수는 1982년에 서울법대에 입학하여 본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로 대체복무를 하였다.

그 후 독일로 건너가 드레스덴 대학을 거쳐 함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97년 말 귀국해서 한림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강의하였으며 2005년 3월 본교 행정법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행정법 1, 2 행정구제법과 행정법 연습을 강의한다. 이원우 교수는 학부시절부터 환경법에 관심이 있어 온산과질사건을 소재로 '환경규제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이라는 졸업논문을 썼다. 당시 환경법영역이 행정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기 전이라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선택했다. 그 후 환경규제는 곧 경제규제라는 인식 아래 경제행정법을 하게 되었고, 독일에서도 경제행정법의 대가인 슈토버(Stöber)교수님 밑에서 공부했다. 로스쿨이 되면 통신법, 방송법 강좌를 개설할 계획을 밝혔으며 통신법은 물론 경제행정법 전반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경제행정법 연구를 기초로 하여 현재의 일반행정법 이론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그 밖에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수단(과징금, 행정벌 등)에도 관심이 있어 학술지원재단의 지원으로 2년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원우 교수는 행정법을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는 행정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구체적인 문제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인 것 같으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과서의 행정법이론을 구체화시키라고 조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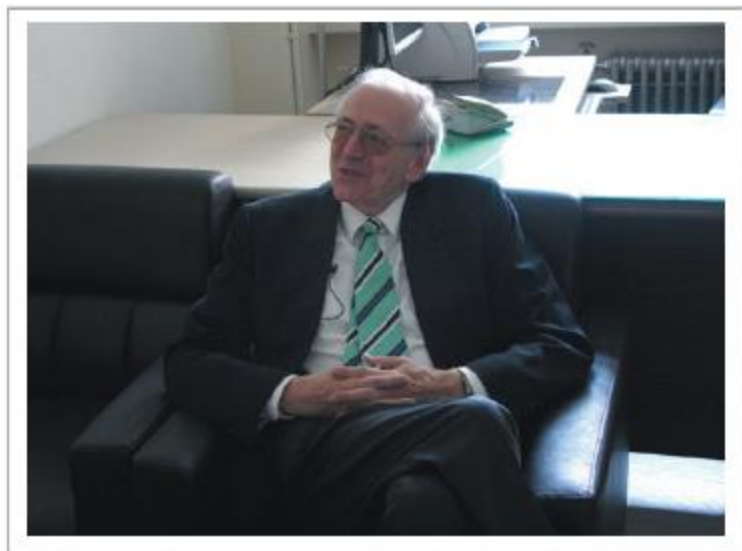
이원우 교수

>>특집2-신임교수 및 외국인초빙교수 소개



Rainer Frank 교수

Rainer Frank 교수는 1938년생으로 1967년 법학박사 자격, 1976년 교수자격을 취득하고 1977년부터 뮌스터 대학, 1980년부터 아우크스부르크 대학, 1985년부터 작년까지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재직하였다. 주 연구 분야는 친족법, 상속법, 국제사법이며, 1994년 이래 국제가족법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회장직에 재임하였고, 현재는 집행위원회이다. 1996년에 서울대 법대에서 “Grundprobleme des etelichen Sorgerechts(친권법의 기본문제)”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바 있고 그 원고의 번역본이 법학지 37권에 실려 연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사회의 공동체 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서구의 자유로운 스타일을 선호하는 한국사회의 학생들은 개인주의 사회가 겪는 어려움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두 시스템을 비교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한국에서는 한국과 독일법의 가족법을 비교 연구하겠다고 한다.



Rainer Frank 교수



崔林林 교수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에 법대에서 강의하게 된 崔林林(Cui Linlin) 교수는 중국정법대학(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에서 법제사와 비교법을 전공해서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리에게 친숙한 성씨에서 알 수 있듯이 김립성 출신의 조선족이다. 양친이 모두 조선족이어서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한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관계로 한국어보다는 중국어와 영어가 편리하다고 한다. 崔林林 교수는 1995년부터 중국정법대학에서 조교수로 2000년부터는 동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교환교수로 다녀온 적이 있으며, 한국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학기에는 학부에서 중국법제사 과목과 대학원에서 중국법 연구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강의와 병행하여 연구활동도 진행 중인데, 현재는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집필중이다.



崔林林 교수

학술활동과 국제화

국제 학술활동

1. 서울대-버클리 대 기술과법센터 공동주최 제2회 하와이 국제 컨퍼런스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SNU Center for Law & Technology)는 미국 버클리 법대 기술과법센터(Berkeley Center for Law & Technology)와 함께 2005년에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카우아이 하얏트 리젠시(Hyatt Regency Poipu Bay, Kauai, Hawaii, U.S.A.)에서 『제2회 하와이 국제 컨퍼런스』 "Telecommuni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U.S. and Asian Perspectives"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법조인과 정부 및 업계가 함께 모여 통신과 방송의 융합(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에 따른 규제 및 홈네트워킹(Home networking)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하고 생산적인 해석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Lessons from Korea: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라는 주제로 버클리 법대의 Howard Sheldanski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통신에 관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튿날에는 지적 재산권에 관하여 'Peer-to-Peer



Technology Reaches the U.S. Supreme Court: Reexamining the Sony Staple Article of Commerce Doctrine'라는 주제로 버클리 법대의 Peter S. Menell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본교에서는 성낙인 학장, 최병조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정상조 교수(기술과법센터장), 이창희 교수, 정종섭 교수, 조홍식 교수, 송옥렬 교수 등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이창희 교수는 '인터넷 경매의 세제문제(Taxation on Internet Auction)', 정상조 교수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의 법적 문제점(Copyright Issues relating to Software Streaming)'을 발표하였다.

2.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원 주최 세미나

2005년 2월 21일, 동경대학교 종합교육동 101호에서 "한국에서 본 일본법(韓國から見た日本法: The Japanese Legal System As Seen From Korea)"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원형성지원 프로그램의 비교법 세미나의 하나로 질

의응답을 통해 한국법과 비교하여 일본법을 연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오후 1시부터 민법을 시작으로 발표와 회답 그리고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상법, 환경법, 형사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교에서는 윤진수 교수(민법), 김진식 교수(상법), 조흥식 교수(환경법), 조국 교수(형사법)가 참여하였으며, 동경대학교에서는 森田修 교수(민법), 神作 裕之 교수(상법), 交告 尙史 교수(환경법), 川出 敏裕 조교수(형사법)가 참여하였다.

한편 이 기간에 성낙인 학장과 박정훈 교무부학장은 동경대학교 법대의 高橋 宏志 학장을 비롯한 학장단과 상호교류협정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와세다대학교 법대의 浦川 道太郎 학장을 비롯한 학장단과도 교섭하여 상호교류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3. 산타 클라라 대학 학술회의 "Korean Law in the Wake of Globalization"



2005년 4월 22일 오후에 미국 캘리포니아 Santa Clara Law School에서 "Korean Law in the Wake of Globalization"라는 이름 아래 학술회의가 열렸다. 산타 클라라 법대의 前학장인 Mack Player 교수의 환영 인사 및 개회 발언이 있은 후, 산타 클라라 대학에서 방문교

수로 있는 본교의 안경환 교수의 기조연설('The Balanced Role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Transformation of Korea')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Recent Transformations of Korea"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산타 클라라 법대의 Patricia Goedde 교수('Korean Law As I Have Observed: 25 Years of Experience-Vitality of the Private Sector'), 워싱턴 대학교 법대의 아시아 법센터에서 Patricia Goedde 교수('The Transformation of Public Interest Lawyering in South Korea')의 발표 등이 이어졌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Challenges of Korean Law'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이 자리에서 한인섭 교수는 'North Korean Criminal Law'라는 주제로, 조국 교수는 'A New Look 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4. 태국출리롱콘 대학교 제2차 ASLI



5월 26일, 27일 태국 방콕의 출리롱콘 대학교 법대(Chulalongkorn University Faculty of Law)에서 제2차 Asia Law Institute (ASLI) 회의가 열렸다. ASLI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법과대학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싱가포르국립대학 법과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Faculty of Law)이 재정을 마련하고 조직결성

을 주도하여 2004년 5월에 만들어진 국제조직 (<http://law.nus.edu.sg/asli/>)이다. 중국 외에는 아시아 지역의 나라마다 한 학교만이 ASLI의 '이사회' (Board of Governors)에 속해 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ASLI의 창립회원이자 이사회원이다. ASLI는 이후 LL.M. in Asian Legal Studies의 공동운영, ASLI Mod. Court 공동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The Challenge of Law in Asia: from Globalization to Regionalization?"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다. 본교에서는 안경환 교수, 정종섭 교수, 조국 교수가 참석하였는데, 특히 안경환 교수는 한국 대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정종섭 교수는 한국 헌법재판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BK Foreign Authority Foru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사업단에서는 수시로 외국 의 저명 학자와 교수들을 초빙하여 Foreign Authority Forum을 열고 있으며, 이는 학문에 있어 국제적 교류의 장을 넓힘과 동시에 세계적 안목을 기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아래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열린 Foreign Authority Forum의 목록이다.

Foreign Authority Forum

회차	주제	초청강사	일시
82	The Cross-cultural Dispute Resolution Course in the Professional School Curriculum	이일형 교수 (미주리대학교 법과대학)	2004/2/6
83	프랑스의 법학 교육	Fredot 교수 (퐁투와즈 대학 / 前 퐁투와즈 대학 법대 학장)	2005/5/2
84	우주법의 현황과 과제	Ram Jakku 교수 (캐나다 맥길대학, 국제우주법 학회 회장)	2005/5/9
85	Challenges of a National Justice (Herausforderungen internationaler Strafjustiz)	Albin Eser 교수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대 교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2005/5/17
86	독도 영유권 및 주변해역 경계 획정에 관한 법적 검토	Jon van Dyke (미국 하와이대 법대 교수)	2005/6/2

외국인 학위 취득자, 교환학생, BK21 장기 해외연수 현황

1. 2005년 현재까지 외국인 학위취득자 등

2005년 현재까지 법대에서 외국인으로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명으로, 이화씨가 2005년 2월 25일 졸업함으로써 석사과정을 마쳤다. 2005년에 타교에서 본교로 온 교환학생은 모두 2명으로, 하라다 나오키(일본)씨와 쿠로이와 사에미(일본)씨이다.

본교에서 타교로 교환학생을 가거나 갈 예정인 학생은 현재 3명으로, 이해람(2학년)씨는 Univ of Northem Iowa(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예정이며, 강정욱(2학년)씨는 워싱턴대학교(미국)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할 예정

이다. 이경후씨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수학한 후 올해 5월 귀국하였고, 송지연씨는 현재 동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2. 단기해외연수 현황

■ 중국 上海華東政法大學 학술대회참가

기 간	2004. 10. 29. - 2004. 10. 31.
대상국 (기관)	중국(상해)
참가자	(교수) 권오승, 김전식, 정상조, 이창희, 조홍식, 송옥렬, 구대환 (학생) 최미자, 박정란, 어재원, 박정현, 김영란, 이명재, 김은구
성과	1. 학술대회 참석: 한국법제 운영경험이 중국에 주는 의미 2. 중국 내 한국법 연구 현황에 관한 자료수집

■ 일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생 학술회의 참석

기 간	2005. 11. 4. - 2004. 11. 8
대상국 (기관)	일본
참가자	(교수) 정인섭 (조교) 임진원, 최형심
성과	1. 학술회의 참석, 일본 내 재일한인사회의 사회활동(정주외국인으로서의 지방참정권 부여 요구운동) 파악. 2. 일본 내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한 문헌 및 외국인 인권관련 문헌 수집 등 자료조사

■ 장기해외연수 선발 현황 (2004년 2학기)

성명	대상국	연수기관	연수목적	연수기관
정민정	미국	미국 버클리대학교	영도분쟁(독도 영유권분쟁)	2004.1.-2004.12.
박세민	독일	독일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부당이득법상의 삼각관계 연구	2004.2.-2005.1.
최은창	영국	University of Oxford, Center for Socio-Legal Studies	WIPO 조약에 따른 방송조직과 공공액세스 권한의 균형의 모색	2004.9.-2005.8.
한동훈	프랑스	Universite Parthenon-Assas Paris 2	정교분리 연구	2005.1.-2005.12

알사, 제섭

1. 알사소식

ALSA(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 SNU는 2005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초청으로 싱가포르 ST(Study Trip)를 다녀왔다. 본 행사에서 ALSA 회원들은 NUS 법과대학의 수업을 참관하고 싱가포르 대법원과 국회를 둘러보며 싱가포르 법학과 학생들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2005년 2월 3일에서 5일까지 강원대에서 제2회

ALSA 학술제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3월 신입회원 모집을 마쳤다. 오는 6월 9일에는 서울법대를 방문하는 홍콩 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와 ALSA SNU의 활동을 소개하고 교류할 예정이다. ALSA는 아시아 10개국의 법학과 학생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그 중 한국 지부에는 서울대를 비롯하여 국내 8개 법과대학이 소속되어 학술과 문화 방면에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가입 및 상세정보는 alsa.woweb.net 참조)



2. 제섭소식



2005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미국 Washington D.C에서 열린 제46회 세계국제법 모의재판 경시대회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에서 서울대학교 제섭(Jessup 지도교수 이상면)팀 11기(배정연(3년), 김미라(2년), 송은영(2년), 최고야(2년))가 세계 11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올해의 사안은 “핵물질 수출과정에서 발생한 테러와 그에 따른 국가 간의 갈등”이었다. 대회규모가 역대 최대(80개국 103개팀)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교 제섭팀이 출전한 이래 최초로 16강에 진출하여 그 활약이 더욱 돋보인다. 개인성적도 우수하여 팀원들 모두 개인성적 100위 안에 들었다. 11기 팀은 1년에 가까운 준비기간 동안 팀원들끼리 세미나를 하거나 자료를 보관할 만한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후배들을 위해 법대 내에 제섭 동아리방이 생기기를 희망했다.



외국인 교수 방문, 강연 및 국제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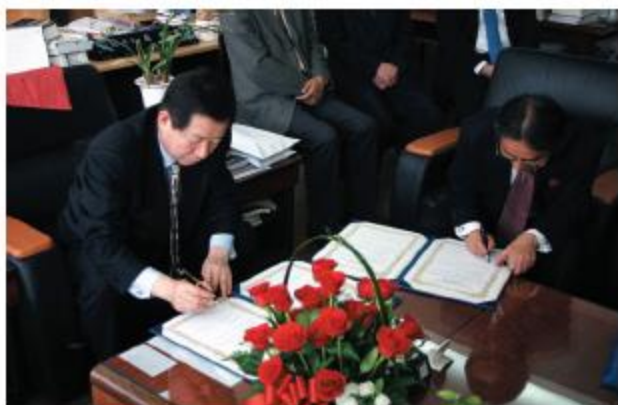
올해에도 어김없이 법대에는 많은 외국인 교수들이 방문하였다. 지난 3월 22일 화요일 오후, 코넬 로스쿨 학장인 Stewart J. Schwab 교수가 법과대학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코넬 로스쿨의 아시아 우수 법과대학 방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날 코넬 로스쿨 졸업생이자 Clarke Program on East Asian Law &



Culture의 최대후원자인 Jack Clarke씨도 함께 방문하여 성낙인 학장, 박정훈 부학장과 양 교간 교류를 논의하였다.

4월 13일에는 Fordham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장 William Treanor 교수와 Thomas H. Lee 교수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방문하였다. William Treanor 교수는 Fordham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장으로 소유권, 지적 재산권, 형법, 법제사를 가르치고 있고 Sorbonne대학교의 객원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한편 4월 22일 금요일에는 나고야 법대(정식명칭 나고야대학대학원법학연구과 및 법학부)에서 在分晴夫 학장(나고야대학대학원법학연구과장) 및 鮎京 正訓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이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날 본교에서는 성낙인 학장과 박정훈 부학장 및 정종섭 교수, 조흥식 교수, 이근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대학간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5월 17일 조지타운 대학교 법률센터 교수진들이 본교를 방문하여 정인섭 교수를 비롯한 본교 교수진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교수진은 T. Alexander Aleinikoff 학장 겸 부총장, Dorothy M. Mayer 국제학생 서비스 담당이사, 오창순(Chang O. Turkmani) 법과 조교수, Wendy Collins Peabue 졸업생 프로그램 담당 부학장 겸 법과 교수이다.

그리고 같은 날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Albin Eser교수가 'Challenges of a National Justice(국제형사법원으로 향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Albin Eser교수는 현재 독일 프라운호퍼대학교 법대 교수로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날은 1시간여의 발표 후 30분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성낙인 학장, 안경환 교수(前학장), 정상조 교수, 장승화 교수는 UCLA 법대(학장: Michael H. Schill), 버클리 대학 법대(학장: Christopher Edley, Jr.), 산타 클라라 대학 법대(학장: Donald Padden), 스탠포드 대학 법대(학장: Larry D. Kramer)를 방문하여 각 대학 학장단 및 관계자들과 상호 학술교류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특히 산타 클라라 대학에서는 학생교류협정을 제안하였으며, 이곳을 안경환 교수가 방문 중이기도 하다.



개최되었다. “비교법과 법학연구(Ⅲ)”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는 지난 2004년 9월 11일, 12월 9일 각각 열렸던 “비교법과 법학연구(Ⅰ)”, “비교법과 법학연구(Ⅱ)”에 이어 개최된 것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법과대학의 양창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법과대학의 이용식 교수(‘결과적 기증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와 박상근 교수(‘설립중의 회사’), 그리고 법과대학의 방문교수인 Gilles 교수(‘Prozessrechtsvergleichung’)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각 주제발표에 이어서 법과대학의 조국 교수, 단국대 안성포 교수, 법과대학 호문혁 교수의 지정토론이 각각 있었으며, Gilles 교수의 발표와 토론에는 법과대학 오정후 교수가 통역을 맡았다.

국내학술활동



BK학술대회

1. BK21 법제도비교연구센터 “비교법과 법학연구(Ⅲ)”

2006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암홀에서 법과대학 BK21 법제도비교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2. BK 21 공익인권법센터 “국제법과 여성인권 - 차별금지과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2005년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법과대학 17동 510호에서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하는 집담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국제법상 전쟁범죄로서의 무력충돌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여성문제까지 다룬다는 의미에서 “국제법과 여성인권 - 차별금지과 여성폭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집담회는 법과대학의 양현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장복희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는 후에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3. BK21 법제도비교연구센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지난 4월 21일 법과대학 17동 서암홀에서는 법과대학 BK21 법제도비교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집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주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Damage-Reducing Activity, Liability Rules and the Good Samaritan Rule)로, 경희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유 교수가 발표하였다.



4. BK21 법제도비교연구센터 “법의 역사와 법학연구”

5월 27일 오후 두시부터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서 BK21 법학연구단 법제도비교연구센터의 주최로 2005년 제7차년도 제1회 학술회의가 열렸다. 학술회의의 주



제는 “법의 역사와 법학연구”였으며 최병조 교수의 사회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발표자는 호문혁 교수(‘소송법상 추정법리의 역사적 변천’), 윤진수 교수(‘高氏門中の訟事を 통해 본 傳統相續法の變遷’), 양창수 교수(‘民法典 制定過程에 관한 殘片’)였다. 발표 후 토론에는 오정후 교수, 신영호 교수(고려대), 김재형 교수가 참석하였다.



각종 학술강연

1. 기당 이한기 박사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지난 1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기당 이한기 박사 1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기당 이한기 박사 10주기 추

모 학술대회가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1952년부터 1980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법 교수로 봉직하였던 고 이한기 박사를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일문화교류기금과 서울국제법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후원하였다. 이한기 박사는 국제법 교수 외에도 감사원장, 국무총리,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등의 직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날 추모학술회의의 제1부는 정서용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한기 박사의 약력보고(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기념사(이상우 한림대학교 총장), 이한기 박사의 국제법관(백충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한기 박사에 대한 추억(정태익 외교통상부 대사) 등을 발표하였으며, 유족 대표 인사(이종용)도 있었다.

한편, 제2부는 “箕堂 先生의 학문세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경희대학교 최승환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그리고 법과대학 정인섭 교수(‘箕堂의 학문세계 I: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의 箕堂 先生’), 숭실대학교 서철원 교수(‘箕堂의 학문세계 II: 영토문제연구를 중심으로’), 법과대학 이근관 교수(‘箕堂의 학문세계 III: 동아시아적 국제법관 정립노력을 중심으로’)의 발표가 이어졌다.



2. 조국 교수강연



4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관악사 910동 2층 공연장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적과의 동거 배우기”라는 주제로 조국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이는 총 6회로 기획된 2005년 관악사 톨로키움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8일에 첫 번째로 강연한 정운찬 총장에 이어 두 번째 순서였다. 이후에는 원희룡 국회의원과 황우석 교수의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조국 교수는 강연에서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상이한 견해를 전제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절대적인 다수파가 되지 못하므로 ‘적’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다수파와 소수파가 대립하고 설득하며 서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는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소수파의 최소한의 기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하고 시대의 흐름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시대에 대한 해석자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변혁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3. 송상현 교수특별세미나



5월 4일 수요일에 140동 국제대학원(GSIS)에서 “21세기의 국제형사사법: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n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판사로 제직 중이기도 한 송상현 교수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진행을 맡은 이시영 방문교수 겸 전 외

무부 대사는 수단 사건을 예로 들며 근래 ICC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송 교수를 소개했다. 이 세미나에서 송상현 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연혁과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ICC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4. 김동희 교수 정년기념강연

지난 5월 4일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동안 법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지난 2월에 정년퇴임한 김동희 교수의 정년 기념 강연이 있었다. “나의 행정법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강연에는 많은 법과대학 학생들과 동료교수들,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교무부학장 박정훈 교수

가 사회를 맡아, 성낙인 학장의 기념사와 간단한 약력소개가 있던 후에 기념 강연이 시작되었다.

강연은 김동희 교수 특유의 진솔하고 겸손한 말투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김동희 교수는 초창기에 구체법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뒤이어 재량행위론에 대해 연구하였고, 80년대 후반에는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규명하려는 노력에 왔으며, 교과서를 쓸 무렵에는 총론과 각론을 잇는 기본원리를 규명하려 하였다라고 말했다. 지금 행정법 학계의 확설 대립이 다양하지만,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는 다툼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관심사라 덧붙였다.



교수 집담회

법과대학에서는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교수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집담회에서는 주로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발표를 맡고 있으며, 외부 인사가 초청되는 경우도 있다.

명예교수를 비롯한 법과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며, 교수들 간의 집담회인 만큼 심도 높으면서도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져 각 법학 분야 간의 이해를 돕고, 상호 협력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래는 올해 열렸던 교수집담회의 목록이다.

회 차	주 제	발 표 자	일 시
1	법인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고찰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대)	3.30
2	행정 법과 법학방법론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대)	4.6
3	노동법 제정사의 법사회학적 조명-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4법" 제정의 주도요인 검토를 중심으로-	이홍재 교수(서울대 법대)	4.13
4	검정 수사권 조정 논의의 현황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	4.20
5	실증주의 방법론과 여성주의 법학	양현이(서울대 법대)	4.27
6	프랑스의 법학 교육	Fredt 교수 (종투와즈 대학 / 前 종투와즈 대학 법대 학장)	5.2
7	우주법의 현황과 과제	Prof. Ram Jakku(캐나다 맥길대 국제우주법학회 회장)	5.9
8	조세 법과 법학방법론	이창희 교수(서울대 법대)	5.11
9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유럽 국제법 용어의 번역 및 유통에 관한 고찰-"만국공법"(1864)을 중심으로	이근관 교수	5.18
10	민법 친족권 중 제5장 후견에 대한 법전편찬위원회심의자료의 소개	양창수 교수	5.25
11	독일에서의 親子法에 관한 가장 최근의 발전	Rainer Frank 교수	6.1

서울법대 교수진의 저작물소개

김유성 / 『노동법 I』
법문사



이 책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개설서로 총론적 법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개별적 노동분쟁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쓰였다. 대학의 강의로제로 일차적 목적을 맞춰 원칙적으로 개론 차원에서 서술되었으나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최종고 / 『법철학』
제2판 / 박영사



수험 위주의 한국법학의 분위기에다 불구하고 법철학에 대한 관심이 근년에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법철학회”가 결성되었고, 저자는 2003년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IVR)에서 이사로 피선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국내외의 연구문헌을 보충하고자 새로운 판이 간행된 것이다.

신동운 편 /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 논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 책은 2004년이 형사소송법 제정 반세기임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되었다. 우리 형법전과 형사소송법전의 제정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주역을 맡아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 형법의 아버지이며 한국 형사소송법 제정의 주역이자 법률가, 교육자, 정치가였던 효당(曉堂) 엄상섭(嚴詳燮 1907-1960) 선생의 법사상과 입법 활동을 되새기기 위해 그가 남긴 글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양창수 / 『민법입문』
제4판/박영사



제4판은 내용과 표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그 사이에 나온 새로운 법령과 중요한 재판례가 반영되었다. 또한 민법 공부에 대한 제6장 제2절은 다시 써 20면 가까이 증편되었다.

호문혁 / 『민사소송법』
제4판/법문사



이 판에서는 관할부분과 소송절차의 정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에 관한 설명이 대폭 추가되었고, 판례와 학설을 최근 것까지 반영하였으며, 국제적 소송경합, 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의 부분에도 추가적인 서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기 편하도록 작은 목차도 서술의 틀을 유지하는 한도 안에서 많이 추가하였다.

이흥재 / 『단체행동권』
사람생각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사실상의 실행행사를 규범적으로 용인한 것이므로 정치적, 경제적 여건의 실질적 기초와 노동세력의 성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그 실효성 보장의 진폭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부당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는 우리의 노동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그 한계의 법리를 원초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권오승 / 『경제법』

제5판 / 법문사



이 책에서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독점규제법이 개정과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보호관련법들의 변화를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늘어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나 논의를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성낙인 / 『헌법학』

제5판 / 법문사



제5판에서는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등의 제정과 개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과 탄핵소추기각결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선언 등의 2004년의 헌법상황의 변화에 대해 관련부분을 중심으로 전면 개고하였다.

정인섭 편 /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의지배센터가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진행한 2004년도 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본교 정인섭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모두 8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차별을 법적으로 어떻게 통제하고 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서울법대 송석운 교수), 혼인에 따른 차별(방송대 김엘림 교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서울법대 양현아 교수), 연령에 의한 차별(동아대 박경숙 교수), 전과로 인한 차별(울산대 최정학 교수), 국내 화교에 대한 차별(정인섭 교수), 장애인에 대한 차별(박종운 변호사), 혼혈인에 대한 차별(성균관대 이철우 교수) 등이다.

정인섭 편 / 『이중국적』
사람생각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는 이중국적 문제를 법적으로 연구한 국내 첫번째 단행본이다. 이중국적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정책의 변화, 국제적 동향, 국제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 국제조약 등의 각종 자료를 첨부하고 있다.

남효순·김재형 편 / 『도산법강의』
법문사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2002년 2학기에 개설하였던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 14기 기업의 갱생·도산과 법'의 강의자료를 발전시킨 것으로 도산법 분야에 정통한 교수, 판사, 변호사의 주옥같은 논문들이 실려 있다. IMF 시대를 거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적 검토를 하려는 것이었고, 당시 우리 정부가 약속한 도산법의 개정과 통합도산법의 제정이라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려는 시도에서 개설되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책이 출간되었다. 그런데 올해 파산법, 회회법, 회사정리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이 통과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도산법의 획기적인 변혁이라기보다는 소폭의 개정을 동반한 관련법의 통합이므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여전히 중요한 연구물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박은정 / 『Bioethics, Research Ethics and Regulation』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 책은 생명공학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야기되는 법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다루었으며, 연구윤리와 입법정책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제5, 6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활발하고, 황우석·문신용 교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줄기세포연구 분야의 연구윤리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7, 8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바람직한 입법정책, 지난 6년간 한국에서 진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관련 입법의 추진경과 그리고 최종 결과로서의 동법의 내용과 향후 문제점 등을 정리하고 있다. 제9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생명복제술, 그 중에서도 체세포핵이식술에 의한 인간복제와 치료용 배아복제 문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정종섭 / 『헌법연구 5』

박영사



헌법연구 5는 憲法研究 시리즈의 일환으로 새로이 출간된 것으로 헌법사연구에 대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기본권의 개념과 기본권의 도출 그리고 문화적 기본권의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도 반영되어 있다. 나머지 글은 권력의 작동, 즉 국정 운영에 대한 글이다.

헌법소송법은 서술의 체계를 다시 다듬고, 그간 저자가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해 견해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보다 심화된 이론적 성과를 반영하였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2004년까지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검토하여 서술에 반영하였다.

정종섭 / 『헌법소송법』

제3판 박영사



정종섭 / 『헌법판례연구 1』

제2판/박영사



헌법판례연구1 제2판은 과거의 법들의 조항에 대해 변경된 조항을 일부 표시하였고, 판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글의 말미에 더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여 독자들이 그 이후의 변화들을 알기 쉽게 하였다.

헌법재판연구1 제2판은 헌법재판의 정초를 놓고 이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의 법리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하여 원래의 기능에 합당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종섭 / 『헌법재판연구 1』

제2판/박영사



이창희 / 『세법강의』

제4판/ 박영사



제4판은 2004년 동안 나온 개정법령과 새로 나온 대법원 판결 60여개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미국법과 미국판례로 우리 법의 입법론이나 해석론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이를 거의 망라하다시피 반영했다. 특히 최근의 미국법의 강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에서, 제4판은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이창희·송옥렬 편 / 『조세법강의』

박영사



이 “조세법강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2004년 2학기에 개설하였던 “전문분야 법학 연구과정 제18기: 조세법 과정”의 강의를 발간시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 법 조제 외에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각 주제별로 해당 분야의 최고권위자가 초빙된 것을 기록한 것이다.

현재 해당분야의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해당분야의 실무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점에서 원론적 교과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박정훈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행정법연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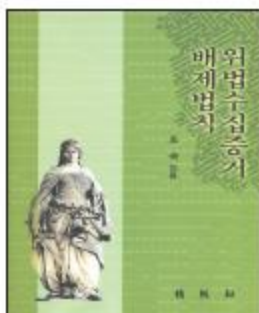
박영사



이 책은 그 동안 저자가 발표한 글 가운데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에 관한 것을 모아 研究論集으로 편집한 것이다. 발표한 글의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고, 일부 수정이 가해졌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처음 행정법을 접하거나 행정법을 심화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강의용 副教材로서, 또한 대학원에서 행정법 연구를 시작하는 학생을 위한 연구용 入門書로서 사용하기 위한 책이다. 이를 위해 책 말미에 비교적 자세한 사항색인과 서양법률용어 색인을 마련하였다.

조국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박영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형사소송의 핵심을 이루는 원리이며, 국가폭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저자는 만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행위를 공식적으로 묵인·조장하는 일이며, 이러한 묵인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책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해서 저자가 그간의 글을 새로이 검토하고 보충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구대환/『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 Computer Program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US, Europe, Japan, Korea』
박영사



이 책은 컴퓨터프로그램과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업방법을 특허와 저작권으로 보호할 때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의한 보호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컴퓨터프로그램과 그 발전의 특성,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의 특성 등을 설명하고 현행제도와와의 부조화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저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혁신의 위와 같은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새로운 보호방식을 찾기 위하여 여러 대안들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 대안들을 기술혁신의 경제학에 입각하여 평가하여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 저자는 또한 이를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의 보호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희/『행정법연습』
제8판/박영사



이 판에서는 새로운 사례는 추가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례들을 그 동안의 법령 내지는 판례 등의 개정 또는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기존의 기술 내용을 보다 전달하기 위한 관점에서 그 표현방법을 어느 정도 고치거나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쳤다.

김동희/『행정법 I』
제11판/박영사



행정법 I 은 무허가제량행사청구권론에 관한 부분, 제량행위의 부분, 행정 행위의 부관에 관한 부분 등이 수정 보완되었다. 또한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기본적인 개정내용도 간단히 정리되어 있다.

행정법 II 는 지방자치법 부분과 공무원법, 경찰법에서 개관조항의 문제 등이 특히 수정·보완되었다. 이외에도 공용부담제도로서의 공용수용·공용환지 및 환경법분야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검토내용도 일부 수정 또는 보충하였다.

김동희/『행정법 II』
제11판/박영사



최고지도자과정(ALP)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지난해 법과대학사상 최초로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최고전문가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정식 명칭은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ALP : Advanced Law Program)으로, 본 과정은 법과대학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최고지도자과정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지난해에는 제1기로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총 40명의 수강생이 총 68강좌에 걸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올해에도 3월 8일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에서 제2기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식이 있었다. 이번 최고지도자과정에는 기업과 법조계의 각 분야에서 총 3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제2기 최고지도자 과정도 6개월 간 총 68강좌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강의는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강의 장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이다.

주요 교과 과정은 크게 세계화 시대의 국가 전략,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전과 법, 국가 경영과 현대

사법, 한국 경제와 법의 지배 등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법학 강의 외에도 1달에 1번의 외부특강이 편성되어 있는데, 5월에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인 황우석 박사가 강연을 하였으며, 6월에는 규장각을 방문할 계획이다.

현대사회에서 법은 사회의 지도이념이 반영된 가치체계이며, 사회지도층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이라는 점에서 법과대학이 주관하는 과정은 큰 의의가 있다. 하루에 2강좌씩 주2회 진행되며, 매회 각 강좌에 본 대학 교수 한 분과 외부전문가 한 분을 초빙하여 이론과 현실을 결합시켜 실효성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권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중현 금융감독원장, 손지열 대법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가들을 초빙했다. 강의 주제에 있어서도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들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와 정책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9기 [인터넷과 법률 II]



전 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은 1996년 3월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급공무원, 기업체 간부사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각 분야의 최근 이론의 동향과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분야의 법률이론을 발전시키고 실무능력을 제고·터득케 하여 날로 증대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이다. 1999년 2학기(제8기)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이 과정을 주관하여 한결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올해 3월 7일에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9기 [인터넷과 법률 II]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입학식은 이 과정의 주임교수를 맡은 남효순 교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공동주임교수인 정상조교수와 34명의 수강생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기에 개설된 [인터넷과 법률 II] 과정은

지난 2001년 2학기에 개설되었던 [인터넷과 법률]과정의 후속과정이다.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9기는 3월 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백주년기념관에서 2교시로 나누어 한 시간 정도의 강의와 30분 정도의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6월 4일에 종합발표회를 끝으로, 6월 11일에는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실제 인터넷과 관련된 영역에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 사이의 실제적 토론의 장이 되도록 꾸며졌다. 한편 2005년 2학기에는 도산법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김영란 대법관 인터뷰

56년생인 김영란 대법관은 젊은 나이에 2004년 헌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사회 각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재직년에 첫 여성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과 함께 보수적이고 남성일색의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사법계에 새로운 바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영란 대법관은 75년에 법대에 입학한 후 제20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최근 대법관에 이르렀다. 본 지에서는 대법원에서 김영란 대법관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성언(석사과정), 최응우(00학번), 변준석(01학번), 정연희(03학번)가 함께 했다.

기자 바쁘신 일정에도 선뜻 시간을 내주신 대법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늦었지만 대법관에 임명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대법관으로서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김영란 대법관(이하 김) 당시에도 다소 뜻밖이어서 약간 당황했고, 지금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거의 10개월이 되어가는 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대법관에 임명되었을 때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영해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어디를 가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진심으로 환영해줍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여성으로 대법관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자 대법관으로 임명되던 당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기대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명이 남성위주의 보수적인 법조문화에 한 변화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집무를 수행하시니 감회가 어떠십니까? 대법원에서는 1년에 2만 건 이상을 처리한다는 데 집무의 부담은 없으신지요?

김 사실 2만 건 이상 처리하는 것은 매우 무리입니다. 하급심보다 업무 부담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계속 일정 속도 이상으로 업무를 처리해 가야되는 것이 부담입니다. 그런데 실은 업무의 양보다는 질에 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제 자신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학습하는 데 우등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이 된 후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훨씬 깊이 있는 나름대로의 관점이 더욱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학습된 우등생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대법관 업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호주제 폐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는 등 대법관님께서서는 기존의 보수적이라 여겨지던 법조계에서는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나, 정작 대법관님께서서는 이러한 평가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의 문제이지 변화만을 추구하거나 완전히 변화하기를 거부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즉 어떤 분야는 지금 개혁을 받아들여 변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또 어떤 분야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진보나 보수나에 관한 것은, 입법, 행정, 사법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은 실정법 해석이 원칙이고 법적 안정성이나 형평도 추구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합의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니 개인적인 성향을 평가 한다는 것은 직무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표출하는 것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합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이 아니면 말을 꺼내는 데에 조심해야겠지요. 호주제에 관해서는 상황이 상당히 성숙했다고 보아 과감하게 말한 것이고, 분야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지난 번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연 당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항상 언급하고 있고, 하나의 '절대적'인 범명제로 자리 잡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법원리에 대하여 소수자의 입장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법이 여전히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라는 다소 허구적인 전제에 기대어 있는 상황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법에 반영한다는 것은 객관성이라는 법의 요청과 외견상 상충한다는 비판에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듭니다. 대법관님의 재판 경험에 비추어 사법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사회는 항상 변합니다. 소수자와 다수자의 기준도 변하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도 유동적입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여성에 대해 재산관리권을 인정한 것도 얼마 안 되는 일입니다. 평등 개념 자체도 변하고, 합리성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과거의 합리성과 지금의 합리성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란 항상 있는 것이고,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적 사건에서 기준을 조금씩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수자의 인권이나 평등권 등이 확장되어온 역사이고 곧 이것이 법률 발전의 역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도 갈등하고 변화·발전해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경계선 상에 있는 사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권이나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없는 부분까지 건드리는 것은 법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경계선 상에 있는 사건에서 지배 권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이 혁명이나 정치가 아닌 이상 그 소수자의 언어가 갑자기 다수자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수자의 감성으로 다수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설득할 수 있는 이론과 언어를 개발하고 다수자를 설득하는 것이 법률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법률가는 운동가나 정치가가 아닙니다. 법률 전공하고도 운동이나 정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법률가의 길을 택하였고, 법률가에게는 법률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경제선적인 사건에서 혼란이 있지만, 이는 불가피하고,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재산관리권이나 친권도 애초부터 인정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추구하면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법의 이념이 변해 온 것이고, 법률가는 다수자들에게 정말 바꿔야 하겠구나 하고 느끼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법적 안정성, 정의, 합목적성이라는 세 가지 이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자 제학 당시 법대에서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3분의 1 이상이 여학우 인데, 그때는 여학생 수가 적어서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강의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요.

김 그 당시 법대 여학우 동기가 단 4명이었습니다. 그 중 조배숙 의원과 강금실 전 장관도 있습니다. 우리 셋은 고등학교 동기 동차이면서 대학도 같았지요. 당시에는 여학생 수가 적어서 여학생은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였습니다. 강금실 前장관과 많이 어울려 다녔으나, 반이 나뉘어져 수업은 혼자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강의로는 박윤직 선생님의 강의를 있습니다. 당시 강제가 인기가 있었고 재미있게 하셨습니다. 조는 한이 있더라도 수업은 충실히 들어갔었는데, 언젠가는 줄고 있을 때 강의했던 것이 시험 문제에 나와서 겨우 기억을 되살려 썼던 기억이 납니다.

활동이 있다면 법대 불교 학생회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 언젠가 서클 멤버는 아니었는데 헌법재판 모의재판에서 여성 헌법재판관을 해달라는 주문이 와서 강금실 前장관과 제가 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이 검사 역할을 했었구요. 모의재판 중 지루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줄고 있었냐고 놀리던 기억이 납니다.

기자 여성으로서 법조계에서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특별한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김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다들 짐작으신 분들이라서 여성이라고 특별히 불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라서 불편하다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남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가사와 육아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업무에서는 남자들과 똑같이 일해야 했지요. 결혼한 남자가 결혼 안한 여자의 두 배의 효율을 내는 것이라면 결혼한 여자는 그 반밖에 못하니까 결국 결혼한 여자는 결혼한

“

갈등이란 항상 있는 것이고,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적 사건에서 기준을 조금씩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수자의 인권이나 평등권 등이 확장되어온 역사이고 곧 이것이 법률 발전의 역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남자에 비해서 4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쉴 수 있고 밥 차려주는 부인 있고 야근 하는 데에도 별다른 문제없는 결혼한 남자 동료들이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조건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공통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장 여성들의 육아문제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출산한 직후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해도 방과 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늘 문제가 됩니다.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있었지요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없이는 지금과 같은 저출

산 사태는 당연한 귀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만의 특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법조인으로서 법학도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타자에 대한 공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판사의 입장에서 재판관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 대해 연민을 가지거나 공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주장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감이 있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비록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어도 승복하더라도요.

우리사회는 지금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이라기보다는 갈등과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때에도 타자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제대로 해소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김. 서울대 법대는 들어오기 힘든 곳입니다. 이곳에 입학했다는 것 자체가 혜택 받는 계층에 있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다수자에 속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혹자는 다수자라는 인식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자 그룹 자체가 소수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혼자 밥 먹고 영화보고, 집에 혼자 귀가했을 때, 어느 누군가 손을 내밀어 무슨 행사에 같이 가자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수자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비난하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소수자에게 손을 내밀고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 동정

김동희 교수 퇴임



2월 28일 오전 11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법과대학 김동희 교수(행정법)의 정년식이 있었다. 5월 4일에는 법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나의 행정법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정년기념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김동희 교수는 1969년 9월 10일 생으로,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 특별과정,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를 마친 후 1972년 법과대학에 조교수로 취임하여 오늘까지 30여년간 봉직해 왔다. 법과대학 학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고문,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1”, “행정법2”, “행정법연습”이 있고, 논문으로는 ‘판례상의 기속제량에 관한 일고’, ‘행정쟁송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등 최근의 것들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각종 제도와 행정작용 등에 관한 다수의 것들이 있다.

송상현 교수 대통령자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1월 18일 본교 송상현 교수가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사개추위는 로스쿨 도입, 국민참여재판 실시 등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마련한 각종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교육, 법무, 국방, 행자, 노동,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내년 12월까지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화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최송화著 “공익론”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최송화 교수가 집필한 “공익론-공법적 탐구”가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정하는 2004년도 사회과학분야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이 책은 공법에 있어서 필수적 개념인 공익개념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공익개념은 법적 논증의 대상이 되고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여 개방된 개념으로서 그 법적 함의가 충분히 구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익론”은 공익의 범문제화를 위한 법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학문적 연구를 담고 있다.

양창수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선임

양창수 교수는 2004년 12월 21일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1956년 「민법초안연구회」로 시작된 국내 최대의 법학관련 학회로서, 민법개정과 각종 민사특별법 제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양 교수는 민법학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할 각오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회지 『민사법학』을 4회로 늘려 발간하고 신예학자들을 위한 신진 학술상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오승 교수 아시아법연구소 “아시아 경쟁법 비교” 심포지엄

권오승 교수가 2004년 설립한 아시아법연구소(Center for Asian Law)에서는 설립 1주년을 맞아 6월 17, 18일 양일간 아시아 경쟁법 비교 심포지엄이 연다. 심포지엄의 내용은 경쟁법의 실체법적인 부분의 비교, 경쟁법의 절차법적인 부분의 비교, 경쟁법 집행에 있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등이다. 아시아법연구소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법을 제정 및 운용하고, 나아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한국법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와 두루 교류 협력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이며, 작년 6월 18일에 설립된 이래 아시아 각국 법률의 비교와 국제적 법률서비스의 지원, 법률가와 차세대 지도자 양성, 법률가의 교류와 협력의 증진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5일에는 권오승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경쟁법학회 주체로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카르텔 규제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성낙인 학장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 취임, 황조근정훈장 수여

성낙인 학장이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법교육연구위원회는 법무부가 국민들에게 생활과 밀접한 법교육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각급학교의 법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단계별로 필요한 교육내용과 교재 마련 등 법교육 실시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3월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 법교육연구위원회는 그밖에도 정진호 법무부 보호국장, 문성우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상준 대법원 송무국장, 민경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등 법조계·교육계 인사 14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4월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2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성낙인 학장은 그간 법조계에 기여한 공로에 힘입어 국민훈장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최연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규 법무부장관, 김종빈 검찰총장, 천기홍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인섭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

정인섭 교수는 지난 2004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인권침해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외에 국내의 인권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의견도 표명한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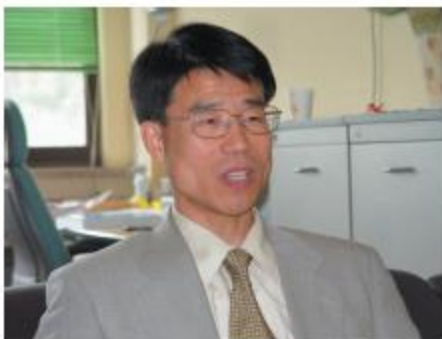
박정훈 교수 한국법학원 논문상 수상

박정훈 교수(교무부학장)는 제9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지난 1월 27일 LG 강남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렸으며,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한국법학원의 정기총회가 이어졌다. 한국법학원에서는 해마다 법학계 인사 1명, 법조계 인사 1명의 논문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법학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이번 2005년에는 박정훈 교수가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행정판례연구 9권)'이라는 논문으로 수상한 것이다. 본교에서는 제1회 법학논문상과 제5회 법학논문상을 양창수 교수('독자적인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와 윤진수 교수('의사의 과실에 의한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가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정금식 교수 Harvard-Yenching Institute(哈佛燕京學舍) 교환교수

정금식 교수는 미국 Harvard-Yenching Institute(哈佛燕京學舍)의 교환교수(2004. 8. -2005. 7; Visiting Scholar)로 재직 중이며, 한국법제사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해 중국법제사를 연구하고 있다.



구대환 교수 싱가포르 대학 초빙교수

구대환 교수는 2005년 1월 15일부터 2005년 2월 19일까지 싱가포르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였다. 구대환 교수는 싱가포르 법대교수들과 함께 '데이터 베이스의 합리적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세계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재단입니다.

서울법대 동문,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및 기업, 단체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서울법대가 진정한 법정의 실현 및 법학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세계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드는 재단입니다.

한 순간의 동정이나 의무감에서 돈을 내고 마는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 모교발전 혹은 대한민국 법학 발전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기부문화의 정신속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진정한 법정의의를 통한 인간 존중의 정신이 단순한 구호나 학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정신의 구현을 위한 바른 인재 양성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法文化 실현과 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 모범적인 재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헌신적인 공익사업을 통해 공익재단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부자분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소중하게 사용하여 영원히 그 뜻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이 하는 일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법학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법 제도와 법 실무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악한 법학 연구 환경 및 학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갑니다.

1. 법학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2. 한국법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3. 법학 도서관 등 법학정보화 사업 지원
4. 법제도 및 법실무 개선을 위한 사업
5. 학계와 실무계의 학술교류 및 발전위한 사업
6. 법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約 定 書

성명(기관명)			
직 장 명	직 위 :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직장: e-mail:	
주 소 (우편물 발송지)	□□□-□□□		
본교와의 관계 (해당란에 표시)	☐ 동문 ☐ 학부모 ☐ 법인/단체 ☐ 기타	입학년도: 학생성명: 대표자성명:	입학년도:
약 정 금 액	일금 원 (W)		
납 부 방 법 (해당란에 표시)	☐ 무통장입금 ☐ 지로입금 ☐ 자동이체(CMS)	농협 서울대지점 079-01-434831 예금주: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조흥 서울대지점 873-03-005786 예금주: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지로번호 6308816 (연락주시면 지로용지를 송부해드립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납 부 기 간 (해당란에 표시)	☐ 일시납부 년 월 일까지 납부 ☐ 분할납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납부		
참 여 내 용	기금용도 () 법학발전 () 환경개선 () 장학기금 () 도서 () 연구소 () 위임 기타 부여하실 기금명칭 (단 약정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함) 및 지출용도 기금명칭 : 지출용도 :		

본 재단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이므로 세법상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